



## 강북신문 5면

# 강북구의회 예결특위 강북구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의결

총3건 10억6천337만원 삭감, 보훈회관 건립기금 등 본예산 편성하기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지난 9월29일 예결위를 열고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김영준 위원장, 유인애 부위원장과 비롯 박문수·한동진·강선경 의원 등 총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124억 4,784만원 규모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032억9,184만원, 세출결산액은 3,519억 5,058만원 등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011억1,301만원으로 승인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2%인 467억1,382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강북구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각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강북구 추경예산 3,964억 3,069만원 가운데 10억 6천337만원을 삭감하였다.

특히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강북구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삭감된 총 3건 10억6천337만원은 의회 휘장마크 제작비 337만원과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비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29일 예결위를 열고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6,000만원을 시급성이 부족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고, 기금전출금 중 보훈회관 건립기금 10억원 기금 또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중 보훈회관 건립기금 중 전액 삭감된 1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이 부족해 삭감은 했으나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 만큼 좀 더 계획성 있는 보훈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요구하며 본 예산에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결특위는 이번에 삭감한 예산 10억6천337만원을 예비비로 돌려 본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결위 심의에서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 지침의 개방시간과

해당학교의 실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지원된 예산이 학교측의 편의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지원 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마주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김영준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예결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추경예산안은 10월 1일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확정됐다.